

등록금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록

1. 일 시 : 2021.12.09.(목) 16:00 ~ 18:00

2. 장 소 : 율곡관 제1회의실

3. 참석위원(10명) : 이형천, 김대중, 배상석, 조재현, 김형우, 이호성, 이동현, 조강민, 김종태, 김영기
(불참 위원 1명 정호신)

(배석) 간사 예산팀장, 예산팀 김규남, 손슬기, 기획팀장, 기획팀 김지훈

4. 심의 안건

가. 2022학년도 등록금 책정(안)

나. 2022학년도 주요 시설 공사 실시(안)

다. 복합형 행복기숙사 신축 계획(안)

5. 회의내용

- 간사는 총 11명의 위원 중 10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안내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최를 선언하다.
- 간사는 본교 학칙 제17조 제3항에 의거하여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어 있음을 설명하다. 조재현 위원이 이형천 위원을 위원장(이하 “위원장” 으로 한다)으로 추천하였으며 참석위원의 만장일치로 이형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다.
- 위원장은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관련 설치근거, 구성, 기능, 역할을 안내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일정 및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하다.
- 모든 위원들은 예산 관련 모든 자료를 등록금 심의기간 동안 회의 장소에서만 공개 열람하고, 회의 종료 후에는 반납하기로 하는 서약서를 작성하다.
- 위원장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보고사항과 심의 안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보고사항에 대해 예산팀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 예산팀장은 2022학년도 예산편성기준(안)에 대해 설명하다.
 - ☞ 대외 재정정책 변화로 2022학년도 교육부 주요예산(안) 중 본교가 참여중인 대학혁신지원사업, LINC 3.0사업,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사업, 국가장학금 지원의 예산 증액이 있고 대학혁신지원사업II (범부처 혁신인재양성)의 신설과 평생교육지원 확대(K-MOOC)가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한 대학의 미충원 가속화, 최저임금 5.05% 인상으로 사립대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다.

☞ 현재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본교 현재 재학생 수 감소로 인한 등록금 감소, 생활관 등 교육부대수입 감소로 어려운 상황으로 2022학년도 입학금 단계적 감축, 강사처우 개선을 위한 강의로 인상, 최저임금 5.05% 인상에 따른 용역비(경비, 청소 등) 및 임시직 인건비 증가, 기부금의 지속적인 확보의 어려움, 12년제 학부 등록금 동결로 인해 신규사업 추진 여력이 부족 등으로 재정여건 계속 힘든 상황임을 설명하다.

☞ 이에 2022학년도 본예산은 위드 코로나 대비 건전한 재정운영, 국고사업 운영 활성화 및 교육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전략적 예산편성, 대내외 대학평가를 대비한 지표사업 지원 및 첨단분야 역량강화 지원, 우수교원 초빙, 연구확대, 평판도 제고 등 대학경쟁력 확보, 유학생, 국고, 기부금, 비학위과정 확대 등 수입원 다각화를 목표로 재정 투입의 성과 극대화,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재정수입의 다각화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다.

- 예산팀장은 2022학년도 본예산 접수금액 및 조정결과를 보고하다.

☞ 2022학년도 각 부서로부터 접수된 수입·지출예산 총액 대비하여 수입조정사항과 지출조정사항(계속사업 지출조정, 신규사업 예산반영)을 설명하다. 부서별 예산조정 후에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보류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하다.

- 위원장은 심의 안건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위원에게 질의하다.

- 위원 전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최종 등록금책정(안)을 본 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을 진행하는 것에 찬성하다.

[심의 안건 1호 : 2022학년도 등록금 책정(안)]

- 위원장은 심의 안건 1호 「2022학년도 등록금 책정(안)」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다.

- 예산팀장은 교육부 입학금 감축 정책에 따른 학부 입학금은 전년 대비 44.4% 인하(안), 수업료 1.6% 인상(안), 일반대학원 입학금 동결, 수업료 1.6% 인상(안), 법학전문대학원(석사:동결, 박사:1.6% 인상) (안), 특수대학원 입학금 및 수업료 동결(안) (단, 국제대학원 융합에너지, 시민사회학과는 입학금 동결, 수업료 3.0%인상), 계약학과 등록금(안)에 대해서 설명하다.

- 아울러, 교육부에서는 2023학년도부터 학부입학금 폐지 대신 해당 금액을 수업료에 합산하되 수업료 인상을 한도에서 제외하며 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Ⅱ로 지원하는 사립대 재정지원방안을 준비중으로 알고 있으며 교육부 지침이 확정되면 위원회에 안내드릴 예정이라고 설명하다.

- 교직원위원회는 등록금의 최대 인상 비율을 질의하다.

☞ 예산팀장은 등록금은 「고등교육법」 제11조 제 10항에 따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2021학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 예측을 반영할 경우 1.6%까지 인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다. 단, 교육부의 최종 등록금 인상율(안)은 12월 말에 별도 공시될 예정이며 공시결과에 따라 비율은 조정될 수 있음을 설명하다.

-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안건 제1호 2022학년도 등록금 책정(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다.
 - 가. 학부 : 입학금 전년 대비 44.4% 인하(안), 수업료 1.6% 인상(안)
 - 나. 일반대학원 : 입학금 동결, 수업료 1.6% 인상(안)
 - 다. 법학전문대학원(석사:동결, 박사:1.6% 인상)(안), 국제대학원(융합에너지학과, 시민사회학과) 수업료 3.0%인상(안), 특수대학원 입학금 및 수업료 동결(안)(단, 국제대학원 융합에너지, 시민사회학과는 입학금 동결, 수업료 3.0%인상)
 - 라. 계약학과 등록금 책정(안)
- 위원장은 제1호 안건에 대해 투표 결과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본 안건에 대해 가결되었음을 설명하다. 단, 학부 수업료 인상 1.6%(안)은 교육부로부터 지원받는 국가장학유형Ⅱ 및 정부재정지원사업에 등록금 인상 여부 제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동결할 수 있다고 정하다.
- 위원장은 제1호 안건 「2022학년도 등록금 책정(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함을 공포하다.

[심의 안건 2호 : 2022학년도 주요 시설공사 실시(안)]

- 위원장은 심의 안건 2호 「2022학년도 주요시설 공사실시(안)」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다.
- 예산팀장은 「2022학년도 주요 시설공사 실시(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본 안건 상정기준은 공사금액 5천만원 이상인 실내·외 환경개선 공사이며, 전기, 설비, 기계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관리 사업은 포함하지 않았음을 설명하다.
- 직원 위원은 가로등 및 케노피 교체 공사에 대해 질의하다.
 - ☞ 예산팀장은 생활관에서 노후 가로등 및 화홍관, 광고관의 노후 케노피를 교체할 계획이라고 답변하다.
- 직원위원과 학생위원은 본교 운동장 야간 이용 시 가로등 강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향후 운동장 가로등 추가 설치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하다.
 - ☞ 예산팀장은 운동장 가로등 관리를 주관하는 총무팀에 해당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답변하다.
- 위원장은 제2호 안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본 안건에 대해 가결되었음을 설명하다.
- 위원장은 제2호 안건 「2022학년도 주요시설 공사실시(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함을 공포하다.

[심의 안건 3호 : 복합형 행복기숙사 신축 계획(안)]

- 위원장은 심의 안건 3호 「복합형 행복기숙사 신축 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다.
- 기획팀장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융복합 주거·교육공간 창출과 외국인 유학생 유치 증가 등 안정적인 국제화 추진을 위한 기숙사 공간 확보를 위해 現 남제관 부지에 신축 예정인 「복합형 행복기숙사 신축 계획(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다.

☞ 행복기숙사는 정부사업으로 사학진흥기금에서 기숙사 건축비의 90%를 부담하며 BTO 방식을 준용하여 특수목적 법인(SPC) 설립한 후에 기숙사 건물은 학교에 기부채납하며 최대 30년간 기숙사 관리·운영을 하면서 해당수입으로 건축비를 상환하는 방식임을 설명하다.

☞ 본교가 추진하는 복합형 행복기숙사는 기숙사와 아주 반세기관으로 공간이 분리되며 현재 추정되는 총 소요예산은 307.3억원(사학진흥재단 부담 약 163.8억원, 학교 부담 143.5억원)으로 실제 사업 진행시 한국사학진흥재단과의 협의 경과 등에 따라 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을 설명하다.

- 교직원 위원은 복합형 행복기숙사가 신축할 경우 기숙사 수용율이 증가하는지 질의하다.

☞ 기획팀장은 남제관(4인실 위주) 대신 복합형 행복기숙사(2인실 위주)가 신축될 경우 수용인원이 소폭 감소되지만, 21년 2월 일신관의 완공으로 인해 총 200여명의 수용인원이 증가하여 기숙사 수용율이 국내 중앙일보 대학평가 종합순위 상위 30위권 사립대학 중 5위 이상(2019년 자료 기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답변하다.

- 학생위원은 복합형 행복기숙사 중 아주반세기관(세미나실, 첨단교육 및 학습공간)의 활용도에 대해 질의하다.

☞ 기획팀장은 첨단교육 및 학습공간은 창의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수업방식의 다양화(Flipped-Learning 등)에 따라 기존 강의실과는 전혀 다른 교육·학습공간으로 구축될 예정이며, 수업 외 시간에는 개방하여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학습공간이 될 것으로 설명하다.

- 전문가 위원은 특수목적법인(SPC)설립 후, 운영수지가 적자일 경우 기숙사비가 증가하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은 대학생 거주부담 완화, 소외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행복기숙사 운영 정책상 코로나 등 긴급 상황으로 운영수지가 적자일 경우 기숙사비 증액 보다는 SPC 운영기간 연장 등을 통해 적자를 해결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다.

- 학생위원이 아래와 같이 추가 의견을 개진하다.

▷ 학생위원은 기숙사 수용인원이 실질적으로 일신관에 의대, 약대 학생들의 수용, 행복기숙사의 외국인 학생의 수용을 고려한다면 일반 단과대학의 학생 수용율은 오히려 감소하는 상황에서 새로 건축하는 기숙사의 수용인원을 늘리는 것이 아닌, 아주반세기관을 함께 건축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는지

▷ 현재 본교의 동,서관 노후화로 단기적인 기간 내로 해당 공간에 대한 신축 또는 공간활용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본 상황에서 행복기숙사 외의 아주반세기관을 건립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과연 타당한가

▷ 아주 반세기관의 취지인 첨단학습공간 및 세미나실의 필요성 및 활용도에 관한 자료가 없고, 오직 학생이 사용하는 공간이니만큼, 아주반세기관의 용도에 대해 일부 학생대표의 의견만 듣고 진행하는 것이 아닌, 전체학생 의견조사 등을 통한 의견이 반영가능한 장을 열어 해당 장에서의 의견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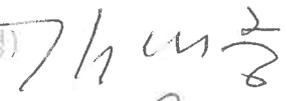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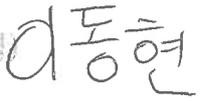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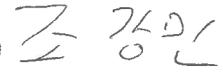
- 위원장은 제3호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음을 확인하고 최종 투표 결과 찬성 7명, 반대 3명으로 본 안건에 대해 가결되었음을 설명하다.

- 위원장은 제3호 안건 「복합형 행복기숙사 신축 계획(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함을 공포하다.

위원장은 추가 질문이 없음을 확인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 폐회를 선언하다.

2021.12.09.(목)

2022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장	교직원	이 형 천	(서명) 
위원	교직원	김 대 중	(서명) 
위원	교직원	배 상 석	(서명) 
위원	교직원	조 재 현	(서명) 
위원	학생(학부)	김 형 우	(서명) 
위원	학생(학부)	이 효 성	(서명) 
위원	학생(학부)	이 동 현	(서명) 
위원	학생(대학원)	조 강 민	(서명) 
위원	관련 전문가(회계사)	김 종 태	(서명) 
위원	관련 전문가(회계사)	정 호 신	(서명)
위원	학부모	김 영 기	(서명) 